

#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동양 고전의 통합적 접근 고찰\*

## Integrated Access for Activation of Oriental Classical Materials Usage

한 미 경 (Han, Mi-Kyung)\*\*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현대 동양 고전의 분류와 접근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전통적 분류의 적용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2 현대적 분류와 접근      |
| 2. 연구의 배경       | 4. 논의               |
| 2.1 문헌분류        | 5. 결론 및 제언          |
| 2.2 도서관의 역할 변화  | <참고문헌>              |
| 2.3 선행연구        |                     |

### <초 록>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대의 전통적 분류 적용과 현대적 분류와 접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현대의 전통적 분류 적용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각부의 새로운 총류(總類)의 추가, 세분화, 유(類)의 추가 또는 새로운 부(部)의 신설, 순서나 명칭의 변경, 불필요한 유의 제거 등과 같이 가공을 거쳐 확대 전개 및 개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적 분류와 접근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이나 도서관별로 전통적 분류와 현대적 주제 분류 외에 특별 서비스 및 이용자 중심의 이용 편의적 분류와 접근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의 탐색 용이성, 2) 도서관과 포털의 상호 호환, 3) 모두를 위한 자료의 공정 이용, 4) 적극적 접근 방법의 제공 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이용 접근점의 제공, 2) 원스탑(one-stop) 검색과 접근, 3) 포털(user-friendly) 같은 사이트의 구축, 4)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의 통합적 접근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동양 고전 접근의 대중화, 이용의 대중화, 독서 자료로서의 새로운 대중화를 제안하였다.

要語: 동양 고전, 사분법, 이용활성화, 통합적 접근, 한국십진분류법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유경편찬센터/한국유교학회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임.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bib4u@kgu.ac.kr)

■ 접수일: 2017년 3월 10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o seek the integrated access to activate oriental classical materials, traditional classification and modernized classification and access of the modern tim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ases of traditional classification usage in modern times in Korea, it was found out that traditional classifications are evolving in expanded way and supplemented through such processing as addition of general to each part, segmentation, addition, or new classification of new department, alteration of order or nomenclatures, removal of unnecessary section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ases of classifications and approaches of modern times, it was found out that they are providing special services and user friendly conveniences in usage, in addition to traditional classification and modern subject classification by each institute or library.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1) users' convenience in book search in accordance with literature classification method, 2) interchangeability of libraries and portal, 3) fair usage of materials for all and 4) construction of programs for activation of classics readings, etc. were discussed. As a result, integrated approach models of program construction for vigorous use of Oriental classics such as 1) providing preserv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user based integrated approach in use, 2) One-stop search and approach, 3) user-friendly site set up and 4) various programs were suggested and popularization of access to oriental classical materials popularization of usage, and new popularization as reading materials, were proposed.

Key words: oriental classical materials, quartering classification, usage activation,  
integrated access, KDC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계와 전문기관 및 도서관계 등에서 콘텐츠의 디지털 구축과 번역의 콘텐츠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등 도서관계의 동양 고전의 원문 디지털화와 해제사업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서 출간 사업 등이 그렇다.

그러나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양 고전은 대중화에 쉽지 않다는 한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중 이용을 위한 걸림돌의 하나는 동양 고전 대부분 한자로 기술되어 있기에 내용 이해에 따른 언어적 어려움이 있으며, 이외에 사분법과 같은 전통적 분류로 인한 검색과 접근의 어려움 또한 있다. 따라서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 방향은 디지털화를 통한 고전 원문의 콘텐츠화, 번역과 해제 등을 통한 고전 내용 접근의 활성화 외에도 고전 콘텐츠 이용을 위한 환경적 및 서비스적 측면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획득하고자 있는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에게 동양 고전을 제공 및 이용토록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라는 환경 제공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대의 전통적 분류 적용과 사례 그리고 현대적 분류와 접근의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법과 역사연구법 및 실사와 인터넷 조사법 및 사례연구법으로 진행하였다. 즉, 분류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경우 문헌연구법과 역사연구법으로 진행하였고, 현대의 전통적 분류와 현대적 분류의 경우 인터넷 조사법 및 사례연구법으로 진행하였다. 사례 조사의 경우 현대의 전통적 분류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성대 존경각, 고려대 도서관, 한국역사통합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현대적 분류와 접근의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성대 존경각, (주)코리아콘텐츠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2. 연구의 배경

이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문헌분류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및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문헌분류

‘분류(classification)’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의 학문 분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과 같은 정보제공기관의 분류는 문헌분류로서 학문분류와는 관련 주제나 목적이 다르므로 그 분류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학문분류는 해당 학문대상의 주제 관찰이나 경험,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획득된 개념, 지식,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류이다. 반면, 문헌분류는 학문의 연구결과로 얻어진 기록매체들을 효과적으로 정리, 보관, 검색, 이용하기 위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 배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호를 부여한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sup>1)</sup>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분류란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을 유사한 것은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 또는 그 결과를 분류된 사상의 명칭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표”이다. 즉, 문헌분류는 도서관이 입수하는 자료의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주제나 형식의 유사성 또는 특정한 원칙이나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행위나 과정이다.

보존이 중요한 동양 고전에 적용되어 온 분류법 또한 문헌분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분류법은 서지분류라 할 수 있는 칠분법 또는 사분법 등으로 현대에 이르러 자관 소장의 동양 고전에 대한 분류를 보다 전문적 또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분법을 개수하거나 수정 및 확장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서관이나 기관의 경우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대의 대표적인 문헌분류이자 서기분류인 십진분류법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

### 2.2 도서관의 역할 변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및 가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으며, 정보매체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

1) 김정현, “식물학의 학문분류와 문헌분류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권 3호 (2008), 369-386.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즉, 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은 전통적으로 건물 및 자료의 소장이라는 아날로그적 개념에서 현대 들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라는 접근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관리는 소장자인 도서관 중심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료의 이용은 모두를 위한 대중적 이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과 개념의 변화는 보존을 중시하고 또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주로 이용되어 왔던 동양 고전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양 고전 또한 이에 상응하는 원문의 디지털 구축 및 다양한 접근 방법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관리 등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 2.3 선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동양 고전의 분류와 이용 활성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동양 고전의 분류와 이용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저자	주요 내용	발표년
분류	이정은	『철략』에서부터 『사고전서총목』에 이르기까지의 분류법에 대한 史的 고찰	1985
	Sapiie	이용자 중심의 분류 연구	1995
	이창수	국내외의 계보자료 관리사례의 조사 및 수집과 분류 및 편목 등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장서관리와 정보검색이 될 수 있도록 계보자료의 수집과 자료조직상의 개선책 강구	2002
	유영준	고전 용어 시소러스의 분류 체계 연구	2006
	오경은, 김기영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 연구	2008
	유재민등	한문고전 정리 및 번역 시스템의 현황과 구축방안 연구	2009
	김형준	인도문화의 효율적 연구를 위한 고전 분류 고찰	2009
이용 활성화	최윤호, 김동건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 디지털콘텐츠의 유사도에 따른 이분 계통의 분류연구	2014
	손계영	국내 P대학교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학연구자의 고전자료 이용행태와 장애요소 조사 및 국학연구 진작을 위한 고전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2001
	이희재	국학고전자료의 시공을 초월한 열람을 위한 디지털화 방안 연구	2005
	이영호	『한국경학자료집성』의 자료적 특징과 보완 및 연구의 방향 연구	2005
	김경호등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한국주자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유학자료의 匯集과 전산화를 연구	2009
	김동건, 정화영	고전문학 디지털 콘텐츠화를 위하여 정보 프로파일을 이용한 도픽맵 기반의 고전문학 디지털 콘텐츠 온톨로지 설계	2012
하승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 대중화 사업의 현황을 살피고 고전 대중화의 방향과 과제 고찰	2015	

종합적으로 동양 고전 분류 관련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로 수집과 정리, 정보검색 및 연구 등의 효율화를 위한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동양 고전 이용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는 디지털 시대인 21세기에 들어 문헌정보학 또는 고전문학 등의 전공자들에 의하여 주로 컴퓨터의 이용과 디지털 콘텐츠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동양 고전 관련 기관의 전문 시스템이나 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3. 현대 동양 고전의 분류와 접근

이장에서는 동양 고전에 대한 현대의 전통적 분류 적용과 사례 그리고 현대적 분류와 접근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분류 적용 사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성대 존경각, 고려대 도서관,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현대적 분류와 접근 사례는 국내 도서관과 기관 및 인터넷사이트 중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성대 존경각, (주)코리아콘텐츠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 3.1 전통적 분류의 적용

동양 고전의 전통적 분류는 한나라 때의 칠분법 『칠략(七略)』에서 청나라 때의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 이르기까지 칠분법에서 사분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전통적 분류의 완성단계인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사분법은 당시까지 전하는 주요 문헌들에 대하여 유가경전과 소학서, 역사서, 사상서와 문학서의 네 부분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 유별분류인 주제분류이자 문헌분류이다. 또한 사분법은 주제의 인위적 분류와 일부 적절치 않은 분류의 배분 등의 단점과 문제들이 고찰되기도 하였지만 동양 고전의 정리에 가장 적합하고 간략하여 기억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 까지도 개수 또는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에서 이러한 전통적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성대 존경각, 고려대 도서관,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현대의 전통적 분류 항목

구분 4부	전통			현대		
	사고전서총목	규장각	장서각	고대 도서관	성대 존경각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經部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孝經類 <b>五經總義類</b> 四書類 樂類 小學類	<b>總經類</b> 易類 書類 詩類 春秋類 禮類 孝經類 四書類 樂類 小學類	<b>總經類</b>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小學類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大學類 中庸類 論語類 孟子類 別經類 <b>總經類</b> 字書類 訓蒙類	<b>總經類</b>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樂類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小學類	<b>總經類</b>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樂類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小學類
史部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b>別史類</b> 雜史類 詔令奏議類 傳記類 <b>史抄類</b> <b>載記類</b> 時令類 地理類 職官類 政書類 <b>目錄類</b> <b>史評類</b>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b>史表類</b> <b>抄史類</b> <b>史評類</b> 詔令奏議類 傳記類 譜系類 職官類 政法類 產業類 地理類 書誌類 金石類	<b>總史類</b> 政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b>史表類</b> 史評類 傳記類 詔令·奏議類 職官類 政書類 金石類 地理類 書誌類 系譜類 其他類 朝鮮王室所藏文書	<b>史部總類</b> <u>東洋歷史</u> <u>韓國歷史</u> <u>中國歷史</u> <u>日本歷史</u> <u>西洋歷史</u> 政法類 記錄類 詔令·奏議類 地理類 金石類 傳記類 系譜類 年表類 目錄類 院宇類 時令類	<b>總史類</b>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 別史類 雜史類 <b>史表類</b> 史評類 傳記類 系譜類 詔令·奏議類 職官類 政書類 <u>一般存安類</u> 金石類 地理類 書誌類	<b>總史類</b> 正史類 編年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b>史表類</b> 史評類 傳記類 系譜類 詔令·奏議類 職官類 政書類 金石類 地理類 書誌類 <b>抄史類</b> 產業類 <u>一般存案類</u> 典禮類
子部	儒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譜錄類 雜家類	<b>總子類</b>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雜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譯學類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理工類 天文類 算術類 方術類	<b>總子類</b>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時令 醫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b>總子類(字彙)</b>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學類 術數類 藝術類 譜錄類

구분 4부	전통			현대		
	사고전서총목	규장각	장서각	고대 도서관	성대 존경각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類書類 小說家類 釋家類 道家類	正音類 譯學類 譜錄類 類書類 西學類 東學類 基督教類 其他宗教類	隨錄類 雜編類 類書類 天道教類 檀君教類 基督教類 其他宗教類 雜家	譯學類 隨錄類 藝術類 小說類 正音文學類 基督教類 其他教類 法家類 雜家類	譜錄類 正音類 譯學類 雜家類 類書類 檀君教類 天道教類 基督教類 其他宗教類 西學類	正音類 譯學類 雜家類 類書類 檀君教類 天道教類 基督教類 其他宗教類 西學類 隨錄類 雜編類 小說家類
集部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評類	總集類 別集類 書簡類 詞曲類 詩文評類 小說類 隨筆類 雜著類	總集類 別集類 尺牘類 詞曲類 小說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評類 詞曲類 功令類 尺牘類	楚辭類 總集類 別集類 尺牘類 詩文評類 詞曲類 小說類	楚辭類 總集類 別集類 尺牘類 詩文評類 詞曲類 小說類 隨筆類 雜著類
그외		叢書部		類叢書部 類書類 叢書類 雜誌 新聞類 雜纂類		

\* 진한색: 총류 또는 제거, 밑줄: 추가 신설, 이태릭체: 세분화 또는 순서변경, 점선: 특이

이상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현대의 도서관과 기관 또는 시스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분류 적용의 항목은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에 총류(總類)를 추가 분류하고 있다. 경부의 '총경류(總經類)', 사부의 '총사류(總史類)', 자부의 '총자류(總子類)'가 추가 분류되었다. 다만 순서가 다르거나 일부 명칭이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집부의 '총집류'의 경우 규장각과 장서각은 이를 앞세웠고, 고대 도서관과 성대 존경각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두 번째로 순서를 변경하였다.

둘째, 기관 또는 도서관 고유 소장 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유(類)를 추가 신설하여 분류하고 있다. 사부의 경우 정보자원 관리 분야인 '목록류(目錄類)' 대신 새로운 유목을 추가 신설하였다. 즉, 『사고전서총목제요』에는 '목록류'만 있으나 기관이나 도서관에 따라 '금석류(金石類)'와 '서지류(書誌類)'를 모두 또는 그중 하나를 추가하고 있다. 자부의 경우 종교류, 신학문류, 한글과

서양학문 번역류를 추가 신설하였다. 우선 종교류와 관련하여 성대 존경각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예를 들면 ‘단군교류’, ‘천도교류’, ‘기독교류’, ‘기타종교류’를 신설하였다. 신학문류와 관련하여 규장각은 ‘사학류(西學類)’, ‘동학류(東學類)’를 성대 존경각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서학류’를 신설하였다. 규장각과 성대 존경각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정음류(正音類)’와 ‘역학류(譯學類)’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고대도서관은 ‘정음문학류(正音文學類)’를 신설하였다. 한편, 집부의 경우 규장각(서간류(書簡類), 사곡류(詞曲類), 소설류(小說類), 수필류(隨筆類), 잡저류(雜著類)), 장서각(척독류(尺牘類), 사곡류, 소설류), 고대 도서관(사곡류, 공령류(功令類), 척독류), 성대 존경각(척독류, 사곡류, 소설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척독류, 사곡류, 소설류, 수필류, 잡저류)의 각 사례와 같이 가장 많은 류의 추가 신설이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과 시스템 등이 공통적으로 추가 신설한 유는 ‘사곡류’와 ‘서간류’ 또는 ‘척독류’이다.

셋째, 새로운 부(部)를 신설하여 분류하고 있다. 신설된 부는 ‘총서부(叢書部)’, ‘유서부(類書部)’, ‘도부(道部)’, ‘불부(佛部)’의 경우가 그러하다. 특히 일부 기관이나 도서관의 경우 사부에 있던 ‘유서류’를 별도의 부로 신설하였다. 규장각이 ‘총서부’를 신설한 반면 고대도서관은 ‘유총서부(類叢書部)’를 신설하고 그 이하 ‘유서류’와 ‘총서류(叢書類)’ 등을 속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규장각, 장서각, 고대 도서관, 성대 존경각,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사부에 ‘도가류(道家類)’와 ‘석가류(釋家類)’ 또는 ‘불가류(佛家類)’를 추가 신설하였다.

넷째, 불필요한 분류는 제거하였다. 경부의 경우 ‘오경총의류(五經總義類)’는 모든 도서관과 기관 등이 제거하였으며, ‘악류(樂類)’는 규장각에서만 분류하고 있다. 사부의 경우 고대 도서관은 ‘별사류(別史類)’를, 규장각과 장서각 및 성대 존경각,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목록류’를 제거하였다. 그중 ‘목록류’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기관이나 도서관에 따라 ‘서지류’와 ‘금석류’ 등으로 추가 또는 세분하고 있다. ‘사평류(史評類)’는 규장각에서만 분류하고 다른 곳은 제거하였다. 집부의 경우 규장각, 장서각 및 고대 도서관은 ‘초사류(楚辭類)’를 제거하였고, 규장각과 장서각은 ‘시문평류(詩文評類)’를 제거하였다.

다섯째,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경부의 경우 다른 도서관과 기관이 ‘사서류(四書類)’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고대 도서관의 ‘대학류(大學類)’, ‘중용류(中庸類)’, ‘논어류(論語類)’, ‘맹자류(孟子類)’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사부의 경우 고대 도서관은 동양역사, 한국역사, 중국역사, 일본역사, 서양역사와 같이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고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또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그 외 순서의 변경, 명칭의 변경, 특이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그중 순서 변경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과 도서관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부의 경우 도교와 불교 분야의 경우 규장각, 장서각, 고대 도서관, 성대 존경각,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도가류’와 ‘석가류’를 앞세웠

다. 명칭 변경의 경우 사부의 경우 규장각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사초류(史抄類)’ 대신 ‘초사류(抄史類)’를 사용하고 있다. 특이한 경우로 전통 사분법의 사부(史部)의 ‘소설가류(小說家類)’의 경우 장서각이 사부에 그대로 두고 있는 반면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 등은 모두 집부(集部)에서 ‘소설류(小說類)’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양 고전에 대한 현대의 전통적 분류 적용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우선 각 부의 총류 추가, 추가 신설, 세분화, 순서나 명칭의 변경, 제거 등의 가공을 거쳐 확대 전개 및 개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전통적 분류인 사분법이 동양 고전의 검색과 접근을 위한 주요 분류로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각 기관과 도서관 및 인터넷사이트 등은 각 성격에 따라 사분법을 수정, 증보, 제거 등으로 개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장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통적 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현대적인 문헌 분류의 적용 노력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현대적 분류와 접근

일반적으로 현대의 동양 고전에 대한 현대적 분류의 적용은 주제별 분류, 서지사항별 분류, 형태별 분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국내의 대표적인 현대 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의 경우 다음의 <표 3>과 같이 총류(000)에서부터 역사(900)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사분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 3> 사분법의 각 부 해당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과 세목

사분법	주제분야
經部	경학, 한국어, 중국어
史部	도서학·서지학, 윤리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국방·군사학, 아시아 역사, 지리, 전기
子部	강연집·수필집·연설문집, 일반 연속간행물, 아시아 철학사상, 불교, 도교, 풍속·민속학, 국방·군사학, 천문학, 식물학, 동물학, 의학, 농업, 농학, 가사·가정학, 조각, 회화·도화, 국악, 오락·운동, 한국어, 중국어, 한국문학, 아시아 역사
集部	풍속·민속학, 공연, 한국문학, 중국문학

이상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사분법의 경부는 총류와 사회과학 및 언어에 분산 분류되고, 사부는 총류, 철학, 사회과학 및 기술과학에 분산 분류되고 있다. 집부는 사회과학과 예술 및 문학에 분산 분류되고 있고, 반면 자부는 총류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십진분류법의 모든 주제 분야에 분산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대 분류법의 적용 수준은 도서관에 따라 주류 수준까지 분류하기도 하고 강목 또는 세목에 이르기까지의 세부적인 영역까지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동양 고전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보존 중심의 도서관의 경우 역시 전통적 사분법으로 분류하여 오다가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도서관 개념의 이용 및 온라인 접근 중심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적 주제 분류 또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현대의 기관과 도서관은 그 외에도 정보 접근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성대 존경각, (주)코리아콘텐츠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현대의 동양 고전에 대한 분류와 접근 사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동양 고전에 대한 현재적 분류 적용과 접근 사례 중 각 도서관이나 기관 및 시스템의 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디렉토리 서비스, 편년자료 서비스, 연계 사이트, 시소러스 검색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디렉토리 서비스는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간행물, 고전국역서, 연구자료, 목록·해제, 인물, 지도, 사진, 연표, 멀티미디어자료, 유물·유적, 금석문 자료와 같이 일차적으로 형태별로 구분하고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 중 고도서의 경우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분법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시대별 일람, 형태별일람, 가나다일람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사료 총서'는 서명, 저자명, 총서명, 발행일 및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역사 용어 시소러스'라는 역사용어에 대한 유의어, 관련어, 상하위어 등을 규정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용어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의 경우 종목별, 유형별, 시대별, 형태별, 시도별, 원문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형태별 검색은 첩장, 절첩장, 권자장, 날장, 포배장, 호접장과 같은 장정 형태별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원문검색의 경우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국왕문서, 관부문서, 민간문서, 사찰문서, 서원향교문서, 근대 문서류, 서예, 간독류, 사고류, 탁본류, 목판각류 등의 유형별 검색으로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성대 존경각의 '한국 경학 자료 시스템'은 한국 지식정보 자원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경학자료 집성』의 원문과 해제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해당 원문 이미지 자료를 링크시켜 놓은 원문 데이터베이스이다. 접근을 위한 검색방식으로 분류별, 주석별, 저자별, 서명별 등의 검색방법이 구축되어 있다. 그중 분류별 검색의 경우 경학 자료에 대한 전체 서지사항 제공 외에 서명, 출전, 저자명, 편명, 장명, 경문, 한국학자들의 주석 및 원문이미지로의 접근 방법 또한 구축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주자학자료, 특히 주자문집의 주석서인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筭疑輯補)』를 디지털화한 '한국 주자학 용어 검색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표 4> 현대적 접근의 사례

도서관/기관/시스템	사례	검색과 접근 방법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KOR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 사분법</li> <li>•기관별찾기</li> <li>•주제명표목</li> <li>•디렉토리검색</li> </ul>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렉토리서비스</li> <li>- 고도서: 사분법</li> </ul>
	한국 역사 용어 시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 주제별</li> </ul>
	한국사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대별 일람</li> <li>•형태별 일람</li> <li>•가나다 일람</li> </ul>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 용어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목별</li> <li>•유형별</li> <li>•시대별</li> <li>•형태별</li> <li>•시도별</li> <li>•원문검색</li> </ul>
성대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 한국주자학용어검색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별검색: 사분법</li> <li>•주석별 검색: 해제</li> <li>•저자별검색</li> <li>•서명별검색</li> <li>•원문검색</li> <li>- 용어검색</li> </ul>
(주)코리아콘텐츠랩	한국현대사 통합데이터베이스(Kdata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별</li> <li>•분야별</li> <li>•자료별: 서명 색인</li> </ul>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고전용어시소러스 - 한문고전자문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지메타검색</li> <li>•형태별</li> <li>•종류별 - 가나다 서명별</li> <li>- 저자별</li> <li>- 주제분류</li> <li>•전문검색 - 서명별</li> <li>- 저자별</li> <li>- 주제분류</li> </ul>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자료포털 - 한국학자료센터 장서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용례사전 - 인물관계정보 - 고지명 용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렉토리 서비스 - 유형분류</li> <li>- 주제분류</li> <li>- 소장처분류</li> <li>- 시기분류</li> <li>- 지역분류</li> <li>- 권역분류</li> <li>•전자지도 서비스</li> <li>•전자연표 서비스 - 시대별</li> <li>- 연도별</li> <li>- 시기별</li> <li>- 주제별</li> <li>•인물정보 서비스</li> <li>•전자사전 서비스</li> </ul>

\* 진한 색: 전통적 분류, 밑줄: 주제 분류

넷째,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 고전 종합 DB’는 고전번역서, 한국문집총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 한국고전번역원의 모든 간행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웹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형태별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가나다 서명별과 저자별 및 주제 분류 등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고전번역서 서지 정보검색, 고전번역서 각주 정보검색, 이체자 정보검색, 고전용어 시소러스 등 특화된 전문검색 콘텐츠가 구축되어 있다. 한편, ‘한문고전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한문고전과 관련한 원문 번역, 원문 탈초, 용어 문의, 이체자 판독 등에 대한 대국민 자문 서비스이다. ‘고전 용어 시소러스’는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용어 정보 사이트 외에 시대와 지역 및 유형 분류별 고전용어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동양 고전의 현대적 분류와 접근의 사례를 종합하면 각 기관이나 도서관마다 구축 및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과 분류 및 접근 방법은 다소 개별적이며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및 성대 존경각 등은 전통적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양 고전을 전문적으로 수집·정리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분류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 및 개수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제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전통적 분류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 등의 경우 주제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표 5〉 참조). 대표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 역사 용어 시소러스’는 13개의 주제와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항목을 통해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의 접근을 위한 주제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자 연표 서비스’의 경우 〈표 4〉와 같이 시대별, 연도별, 시기별 및 주제별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중 주제별 연표의 경우 이하 〈표 5〉와 같이 7개 주제와 ‘개인’ 항목을 통해 역사상 발생한 사건에 대한 연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주제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 등은 모두 개별적인 주제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특별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술의 전통적 분류와 주제 분류 외에 특별한 접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의 경우 원문검색 외에 종목별, 유형별, 시대별, 형태별, 시도별로 구분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시대별과 형태별 외에 가나다 일람이라는 자모순 정렬과 같은 이용자 편의적인 접근이 구축되어 있다.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원문과 관련한 용어사전, 지도, 연표, 인물정보, 전자사전 등의 특별한 접근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

넷째, 이용자 중심의 편의적 분류와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분류와 주제 분류 또는 종류나 형태 및 시대별로 분류된 경우 동양 고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정확한 서명이나 용어 또는 주제 등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전술의 방법으로는 동양 고전의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위한 이용 편의적 분류와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편의적 분류의 사례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색인검색의 일종인 가나다 일람과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 고전 종합 DB’의 종류별 이하 가나다 서명별의 경우가 그렇다.

<표 5> 주제별 분류 사례

		분류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자료포털	국왕·왕실	교령, 의례, 보고
		정치·행정	조직·운영, 임면, 과거, 명령, 보고, 외교
		법제	법령, 소송·판결·공증, 형벌, 사면, 법의학, 치안
		경제	농·수산업, 상업, 토목·건축, 회계·금융, 세금, 매매·교역, 상속·증여
		사회	인구·호적, 신분, 가족·친족, 조직·운영, 지리, 역사
		교육·문화	서원·향교, 가정교육, 문학·저술, 출판·인쇄, 예술, 과학, 근대교육
		종교·풍속	유교, 불교, 기타종교, 민간신앙, 관혼상제, 민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총서, 사상, 역사, 문집, 잡저, 정치, 인사, 외교, 지리, 의례, 의궤, 등록, 문학, 천문, 의약, 농업	이하 각 주제별 해당 서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역사용어 시소러스	역사일반, 정치행정·법제, 국방·군사, 외교·국제관계, 경제·산업, 재정·금융, 교통·통신, 사회·생활, 사회운동·독립운동, 문화·예술, 전통사상·종교, 학술·과학기술, 교육	이하 각 주제별 해당 용어

#### 4. 논의

이상으로 동양 고전에 대한 현대의 전통적 분류 적용 사례와 현대적 분류와 접근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몇 가지 고려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의 탐색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경은 등은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 탐색 용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대형서점에서 책을 찾는 것이 공공도서관에서 찾는 것보다 편하다는 결론을 얻었다.<sup>2)</sup> 즉, 대형서점의 분류표는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잘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자료 분류법보다는 대형서점에서 책을 분류하는 방식이 더 쉽다는 뜻이다. 즉, 전통의 사분법과 현대의 한국십진분류법은 관리자 입장의 분류로서 이용자 편의적은 아닐 수 있으며, 동양고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보다 더 쉽고 빠르게 검색 및 접근토록 하도록 하는 분류 또는 접근 방식과 그에 따른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과 포털의 상호 호환을 고려해야 한다. 2015년 3월 9일자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희귀본과 역사기록물도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8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는 포털 다음의 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이는 도서관보다는 쉽게 이용자들이 접근 및 이용하고 있는 포털을 통해 희귀자료와 디지털 자료 등을 검색 및 접근토록 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장’이라는 도서관의 개념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화되면서 ‘접근’의 개념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털과의 연계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두를 위한 자료의 공정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지식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의미의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를 들 수 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Open Data)를 웹에서 서로 편리하게 연결(Linked Data)하여 웹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의 데이터이다.<sup>4)</sup> 즉, 언어와 보존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동양 고전의 경우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번역과 해제 및 쉬운 분류와 접근과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양 고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법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독서 자료로서의 콘텐츠 개발과 고전 읽기의 활성화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경우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 시절부터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 출범 이후 ‘고전번역서 출간’과 ‘한문고전 자문서비스’ 등과 같은 대중화 사업 외에도 2012년부터는 고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전 콘텐츠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의 읽기 자료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 수탁 ‘초·중등용 고전읽기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

2) 오경은, 김기영,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권 4호(2008), 25-42.

3) <<http://wl.nl.go.k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1595&ref=A>>.

4)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제261호, <<http://wl.nl.go.kr/>>.

고 있다. 이와 같이 동양 고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법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통합적 접근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의 동양 고전에 대한 전통적 또는 현대적 분류 적용과 접근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우선 보존 외에 이용을 위한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기본으로 하되 주로 원문과 번역 및 해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효율적 접근과 관리를 제공하고 있되 동양고전 접근을 위한 전통적 분류인 사분법 분류 외에 현대적 주제 분류의 적용과 분류항목과 서지사항 외에 형태별, 시대별 등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이용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하여 용어 시소러스 또는 한자자문, 연표, 인물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일부 한국역사통합시스템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만이 유관기관이나 도서관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 및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이나 기관은 도서관별로 또는 개별 서비스별로 각각 링크 정보 정도로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 고전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의 제공, 윈스탑(one-stop) 검색과 접근, 포털 같은(user-friendly) 사이트의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동양 고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음 <표 6>과 같은 국내외 기반의 통합적 접근 방안이 구축 및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동양 고전의 통합적 접근 모델

항목	내용	특별 서비스	확장 프로그램
기본	원문 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 시소러스</li> <li>• 전자사전 서비스</li> <li>• 디렉토리 서비스</li> <li>• 전자지도 서비스</li> <li>• 전자연표 서비스</li> <li>• 인물정보 서비스</li> <li>• 고전자문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자료 데이터베이스</li> <li>•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li> </ul>
	번역 + 해제		
분류	전통적 분류 + 주제 분류		
검색	색인검색 가나다검색 비주얼검색 그림검색		
접근	링크 서비스 + 포털과의 연계		
↑ ↑ ↑			
통합적 접근			

## 5. 결론 및 제언

전통적으로 동양 고전은 지배계층이자 지식계급 또는 일부 사람들의 점유물이었으며, 개화이후 서양 학문의 유입과 대중적인 교육의 보급으로 중요한 전통 유산과 고유 문화의 하나로 보존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게스너(Conrad von Gesner, 1516-1565)의 세계서지(Bibliotheca Universalis) 통정의 꿈은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듯이 동양 고전의 이용에 걸림돌이 되었던 원본의 열람 문제 또한 디지털화를 통한 장기보존 등의 현대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동양고전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 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접근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동양 고전은 관리자 중심의 수집과 정리 작업을 거쳐 전통적인 분류항목, 서명, 저자명 또는 주제 등과 같은 서지사항을 매개로 접근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 방법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 등이 아니라면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통적 분류인 사분법과 서지사항과 형태 및 주석별 외에 이용자 중심의 대중적인 접근점의 제공 외에 통일된 주제 분류 및 관련기관 및 포털과의 연계 등을 통한 접근의 대중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동양 고전의 경우 한자라는 언어의 문제와 전통적 분류법을 통한 검색의 문제, 그리고 소장 및 보존 위주의 접근과 관리의 문제로 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동양 고전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구축 및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동양 고전을 활용한 어린이나 청소년 및 성인 등의 각 이용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고전 읽기와 같은 독서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셋째, 독서 자료로서의 새로운 대중화가 필요하다. 주석서, 번역서, 해제서, 스토리서 등과 같은 동양고전의 원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또는 시대상과 더불어 발견 또는 새롭게 창출되는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동양 고전 스토리화 프로그램의 경우 최근 조선시대 왕실의 혈통, 한글소설, 왕실 의례, 소송과 재판, 과거시험, 미술자료 등 분야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개발하는 등 관련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즉, 동양 고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화하고 문화콘텐츠화하는 프로그램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동양 고전의 이용자들의 쉽고 빠른 검색과 접근 및 현대적인 이용과 열람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상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한국 고전과 동양 고전 관련 기관 및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및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연구 또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http://wl.nl.go.kr>>.
- 김경호, 유준필, 이영호. “韓國儒學資料의 匯集과 電算化: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한국주자학용어 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방한문학』 41집(2009). 301-322.
- 김동건, 정화영. “토픽맵 기반의 고전문학 디지털 콘텐츠 온톨로지 설계.” 『한국향행학회논문지』. 16권 4호(2012. 12). 673-678.
- 김정현. “식물학의 학문분류와 문헌분류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권 3호(2008. 9). 369-386.
- 김형준. “인도문화의 효율적 연구를 위한 고전 분류.” 『남아시아연구』 23집(2009). 21-39.
- 손계영. “국학연구자의 고전자료 이용행태: P대학교 연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1.
- 오경은, 김기영.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 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권 4호(2008). 25-42.
- 유영준. “고전 용어 시소러스의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권 2호(2006). 415-433.
- 이정은. “四部 分類法의 史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역사교육. 1985.
- 이창수. “게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권 3호(2002). 257-279.
- 이희재. “국학고전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모범적인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권 1호(2005). 105-123.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 최운호, 김동건.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 디지털콘텐츠의 유사도에 따른 이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2권 7호(2014). 102-110.
- 하승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 대중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45집(2015). 35-68.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3.
- Baker, S. and G. Shepherd.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the Principles Behind Them and Their Success.” *Reference Quarterly* Vol.27 no.2(1998). 245-251.
- Boter, J. and M. Wedel. “User Categoziration of Public Library Collection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7(2005). 190-202.
- Coffman, S. “What If You Ran Your Library Like a Bookstore?” *American Librarians* Vol.29 no.3 (1998). 40-44.
- Lynch, S. and E. Mulero. “Dewey? at This Library with a Very Different Outlook They Don’t.” *New York Times* 14 July(2007).
- Sapiie, J. “Reader Interest Classification: the User Friendly Schem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19(1995). 143-155.

Sawbridge, L. and L. Fauvret. "The Mechanics and the Magic of Declassification." *Library Association Record*. (1982). 385-386.

Shore, M. "Gilbert Library to Be First to Drop Dewey Decimal." *The Arizona Republic* Vol.30(2007).  
<<https://perrybranch.wordpress.com/2007/06/06/hello-world/>>.

